



괴산군 말세우물과 과천시 찬우물 모든 물을 한 그릇의 정화수처럼



김기빈 | 한국토지공사 지명연구위원 /
중앙지명위원회 위원(ddangkkb@hanmail.net)

양자강의 발원지를 '남상(濼瀾)'이라 한다. '남상 - 술잔에 넘친다'는 뜻이다. 대륙을 적시며 도도하게 흐르는 양자강도 그 강물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술잔에 넘칠 정도의 작은 물에 불과 하므로, 모든 사물의 시작과 출발점이란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며 민산(岷山)에 있다고 한다.

옛 글에는 한강의 근원을 금강산, 오대산, 월악산이라 하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오대산 우통수(于筒水)를 꼽았다. 권 근의 기문에 이르기를

서대 밑에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니, 물 빛깔과 맛이 탄 물보다도 훌륭하고, 물을 삼가 함도 또한 그러하니 우통수라 한다. 서쪽으로 수백 리를 흘러 한강이 되고 바다에 들어간다. 한강은 비록 여러 곳에서 흐르는 물이 모인 것이나, 우통수가 복판 줄기가 되어 빛깔과 맛이 변하지 않는 것이 중국에 양자강이 있는 것과 같으니 '한강'이라는 명칭도 이 때문이다.

하였다. 곧 우통수는 한강의 발원샘의 하나로서 양자강의 '남상'과 같다. 그래서 그전에 서울의 물장수들이 한강물을 길어다가 팔 때에도 한강의 가운데 물이나, 강변의 물이나에 따라서 물 값이 달랐고, 강 가운데 물중에서도 윗물이나, 아랫물이나를 가려서 썼는데, 바로 강 가운데로 흐르는 물이 우통수의 물이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우통수는 '우(宀:上) 통(동그란 모양의 움수)', 곧 맨 위의 동그란 모양의 움에서 흐르는 샘물로 풀이할 수 있지만, 필자가 몇 년 전 이곳을 방문하였을 때, 우통수는 낙엽과 쓰레기에 방치된 채, 그냥 버려진 물이었는데, 근래에 정화된 것으로 보도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유서 깊은 한강의 발원샘이 이렇진대, 강 하류의 물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이 나라 많은 강들이 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 강에 사는 물고기가 죽고, 그 물고기를 먹은 철새들이 죽고, 그 강물을 마신 인간이 병들어 간다면 강물에 담겨진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생수다, 약수다 하면서 수돗물 마시기를 기피하고 있다. 입적한 어는 고승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고 갈파하였지만, 그 법어의 불가적 의미 이전에 생명체가 먹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물은 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 본다.

말세 증후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인간성의 파괴, 핵무기의 확산, 에이즈와 같은 질병의 창궐 등등... 그 중에서도 나는 물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0세기를 「불의 시대」, 「에너지의 시대」라고 한다면 21세기는 「물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미래에 있어서는 물 문제가 제 1차적 생존의 조건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지난 1972년 로마 클럽은 <성장의 한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석유보다도 먼저 「물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고, 1992년에 나온 <지구의 위기>에서는 21세기 중 지구의 파멸을 경고하면서 이 세계가 성장의 속도를 늦추고 「존속 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을 즉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의 곳곳은 여전히 도시화, 산업화, 개발화에 몰두하고 있으며 무작정 앞을 향하여 내달리고만 있을 뿐 뒤에 남겨지고 있는 문명의 황폐화에 대하여는 애써서 외면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충청북도 괴산군에 있는 말세(末世)우물과 경기도 과천시 '찬우물'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충북 괴산군 증평읍 사곡리 시청마을에 있는 말세우물은 조선 초기인 세조때 나라 안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는데, 그때 이 마을을 지나가던 한 노승이 우물터를 잡아준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우물자리를 잡아준 노승은 떠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곳에서는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는 차디찬 샘물이 솟아날 것이요, 장마 때나 가뭄 때나 우물이 항상 변함없을 것이나, 이 우물이 세 번 넘칠 날이 있으리니, 그때마다 큰 변란이 일어날 것이며, 특히 세 번째 물이 넘칠 때는 말세가 될 것”이라 하고는 총총히 떠났다고 한다.

그 후 이 우물은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한번 넘쳤고, 1950년 6월 25일에 한번 넘쳤다고 하는데, 두 번 넘쳤으니 이제 단 한번의 넘침이 남아 있을 뿐이다. 나는 이 「마지막 한번」이 불안한 인류의 장래를 예언하는 것 같아서 한갓 전설 같은 이야기로만 돌려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끝없는 욕구, 이로 인한 문명의 횡포는 문명비평가들이 말하는 인류의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찬우물'은 과천에서 인덕원으로 넘어가는 고개 못미처서 삼거리의 찬우물 마을에 있다. 이 우물은 조선 정조임금이 부친 사도세자의 원행길에 과천을 지나다가 마신 샘물이라고 한다. 그 물 맛이 차고 뛰어났으므로 정조가 가지(加資 :조선시대 정삼품 통정대부 이상의 품계, 당상관이라고 함)를 제수하였으므로 이 우물을 가지우물, 또는 찬우물이라고 부르고 있다.

필자가 10여 년 전 이곳을 찾아가 있을 때만 하여도 비교적 깨끗한 물이 솟아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근래에 다시 찾아가 보았을 때에는 마을의 빨래터로 변해 있었으며 돌보는 사람도 없이 황폐화 되어가고 있어서 안타까웠다.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으나 과천시가 이 우물을 정확하

고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

우리 선인들은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에 대하여 깊은 외경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샘곳을 한다거나, 제사를 지내는 등 우물 자체를 신성시 하였던 것이다. 세계의 모든 문명발상지를 보더라도 샘이 없는 나라, 강이 없는 나라를 생각해 볼 수 없다.

강을 옛날에는 '가람'이라 불렀다. 곧 '굴'에 '음'이라는 접미어가 붙어 '가람'이 되고, 여기서 파생된 말로서 '굴'이 '골(골짜기)'이 되고, '고을'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국가를 뜻하는 '나라'라는 말도 고어는 '라라'였으며 이것도 강의 '나루'에서 비롯된 말로 보고 있으니, 강과 인간의 삶, 그 불가분의 관계를 살펴하고 있는 셈이다.

오늘날 도처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물의 신음소리를 듣는다. 그것은 인류의 종말을 경고하는 소리이기도 하다. 지구는 태양계에서 유일한 물의 혹성이며, 지구 생태계의 기본이 곧 물이다. 인간은 그 거대한 지구 생태계의 한 부분일 뿐이며 주인이 아니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의 공존의 지혜, 공존의 철학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가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았을 때,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은 황폐해진 자연과 지구의 종말일 뿐이다. 참으로 모든 물은 「한 그릇의 정화수(井華水)」라는 성수적(聖水的)인식이 필요한 때이다. 🌊

